

2019 학년도 1 학기 원아시아재단 국제 세미나

「인문교양 : 아시아공동체 :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시리즈 강좌(12)

주제: 동아시아의 <역(易)> 학문 트렌드와 이색 문화

제 12 회 One Asia 재단 국제 세미나에서는 홍콩교육대학교의 정길웅(鄭吉雄) 교수님을 모셨다. 정 교수는 대만대학교 중국문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대만대학교 중문과 교수와 홍콩교육대학교의 부총장을 역임하셨다. 현재는 홍콩교육대학교 문화역사강좌 교수직을 맡고 있다. 정 교수의 전공분야는 중국과 동아시아의 경전해석학, 중국사상사, 그리고 <주역周易>이다. 본 강연 중심 내용은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연구학(area studies)는 세계의 트렌드이며, 지역 연구의 일환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역동적인 동아시아'는 주목받을 만하다. 이번 학기 시리즈 강좌의 핵심인 '아시아 공동체'도 역시 지역연구 개념에 포함된다.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시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정 교수는 유럽과 미국의 관점에서 해석한 동아시아를 소개하셨다. 지역 연구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십 년간 활발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 영국연방의 학문 분야에서 지역 연구가 2020 년부터 정식으로 하나의 연구 학문이 될 예정이다. 앞으로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전망이다. 그 외에 네덜란드 레이던대학교(Leiden University)는 2010 년에 LIAS(The Leiden University Institute for Area Studies)를 설립했다.

아시아에서는 19 세기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 1835-1901 ) 가 '탈아시아론'을 주장하면서 현대적인 '동아시아'의 개념을 보여주었다. 유럽과 미국 학계에서는 17 세기부터 '극동'에 대한 세계적 시야를 가졌다. 그들은 몇 백 년 동안 식민 지배와 땅을 개척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20 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동아시아'라는 관념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내부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와 외부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의 개념은 그 배경이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역들을 모두 <주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정 교수는 <주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다. <주역>은 세계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중국 경전이다. 동시에 일본과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역대 천황의 연호가 <주역>을 참고해서 정한 사례가 많았다. 레이와(令和)시대 이전에 일본 연호 유래의 출처는 <주역>에서 수용한 것이 무려 스물다섯 개나 된다. 또 알다시피 한국 국기를 보면, 중앙에 태극이 있고 네 모서리에 건(乾), 곤(坤), 감(坎), 리(離)라는 네 괘가 있다. <주역>은 철학성과 종교성을 겸비하고 내용 구조가 괘(卦), 효(爻), 경(經), 전(傳)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역>이 보여 준 신도설교(神道設教) 정신은 신성하면서도 신비스럽고 자연과학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를 동경하고 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중국에서는 <주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점, 과학, 문헌, 명리학, 철학, 상(象) 등 모두 다 연구 범주에 포함된다. 학술과 민속 등 다방면으로 포함되어 우리의 삶이나 문화와 밀접하다. 타 영역으로 넘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중국의 경전학설이 일본으로 전해지고 나서 다른 유가전경보다 <주역>이 더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인기가 더 많은 이유가 바로 <주역>이 점에도 응용되며 운명, 생사, 화복, 철학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주역>이 일본으로 전해진 시기는 6 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전해진 <역>학이 어느 유파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주역>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시대 때가 되어서야 현학(顯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주역>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우선, 한국, 중국, 일본은 <주역>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근대부터 현대까지 각각 다른 운명에 맞섰다. 사회, 문화, 풍속 등 여러 측면에서 중국과 대만에 미친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주역>의 문헌과 철학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은 대부분 이성관계와 가정윤리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음양 철학의 뿌리도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다르게 반영된다. 예를 들면 음양 철학이 역법(曆法)에 적용될 때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웹사이트: <https://oneasia.pccu.edu.tw/faculty.php>

번역: 류유용(한국어문학과 졸업)

감수: 김선효(한국어문학과 부교수)